

근검절약이 곧 환경보전

실생활에서 환경보전 노력이 절실

박재주 / (사)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 ISO 14000 인증제도 도입 등 95년은 환경보전에 일획을 긋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환경보전협회 박재주 사무총장.

박총장은 성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에는 연세대 보건대학 교수를 거쳐 1982년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부장과 한국환경독성학회 회장 등 환경과 보건분야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큰 족적을 남겼으며, 93년부터 국내 환경의 파수꾼을 자임하는 (사)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특히 공해관리론, 일본의 폐기물관리 등 환경과 보건에 관한 100여를 헤아리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박총장은 실생활 곳곳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20여년전 저서집필시 사용하던 원고지와 30여년 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서류용지를 가정과 협회에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근검절약의 모습을 후학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사)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하여 1978년 10월 설립되어 현재 본부를 비롯하여 11개 지부를 전국에 두고 환경보전에 침병의 임무를 특특히 하고 있는 곳이다.

“협회의 회원은 방지시설 운전에 관한 기술지원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가 측정 실비를 협회가 대행해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협회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사)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사업과 기술지도,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및 보급, 조사연구와 평가, 환경보전에 관한 요원훈련사업과 환경마크제도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 환경보전협회 박재주 사무총장

전개하고 있다.

“환경보전은 대규모 기업군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박총장의 환경보전 전략은 기업은 최대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고 법규대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서는 오염물질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재활용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군의 경우 환경파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중 하나이다. 박총장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성장과 개발을 빌미로 파괴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 이윤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며, 현재 각 기업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O 14000 인증 시험시범업소로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이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인식되어 왔던 석유화학업종이다. 특히 국내 5개 정유회사중 4개사가 앞장서서 인증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포장산업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야흐로 세계는 환경보호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운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본협회에서는 기업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환경경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업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경영측면에서도 환경경영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세미나를 협회차원에서 개최하여 국내환경경영의 상황과 외국의 발달된 상황을 비교 고찰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INPOCO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전 제품과 기계들을 국내외에 매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가정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제품 사용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산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각 가정에서는 가정용 폐기물의 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각 가정이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회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포장산업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내 포장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만이 환경보전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박총장에 의하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많은 환경파괴적인 폐기물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가속화 되면서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라미네이트 코팅과 같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가 유통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포장재가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느 품목이나 그렇듯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일려는 노력과 경제성은 상반된 경향이 있다. 포장재는 이 점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박총장에 의하면 코팅제

를 안쓰고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사용한다거나, PET병을 유리병으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에서도 다양하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보일 수 있겠지만 유리병을 만들면서 나오는 산업폐수와 매립시 차지하는 부피, 물류비 등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유리병이 PET병에 비해 환경에 더욱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결국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품이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폐기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어느것이 더욱 환경에 유익한 것인가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시각이 길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재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입된 포장 폐기물입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산업폐기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로 포장을 해 수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박총장에 의하면 독일 등 EC국가들은 수입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출하는 나라에 부과하거나 다시 회수해 가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과 항만등지로 다량의 수입포장 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정부와 포장업계 등 관련업체와 기관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정수 기자